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한 지식 네트워크

100-786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4가 310-68 삼풍빌딩 909호

www.eai.or.kr

EAI
동아시아연구원
2002-2012



EAI

동아시아연구원

본 연구원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민주주의를 확산·심화시키고 평화를 구현한다는 목적 아래 열린 사회의 구축·투명한 시장경제의 확립·동아시아 지식사회의 형성·동아시아 연구 및 출판활동과 정책연구에 전념한다.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정관 제2조

EAI

동아시아연구원

2002-2012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100-786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4가 310-68 삼풍빌딩 909호
전화 02 2277 1683
팩스 02 2277 1684/1697
www.eai.or.kr
eai@eai.or.kr

이 사 장

이흥구

이 사

강은모 강찬수 공유식 김동건 김병표
김세원 김 준 김진현 민선식 박경수
박상용 박진원 박찬근 신승훈 신동원
여동찬 유창수 이숙종 임현진 장대환
조상호 하영선 홍석현

감 사

장등우

원 장

이숙종

센터소장

손 열 이내영 전재성 조동호 한석희

JEAS 편집주간

스테판 헤거드

연 구 원

김양규 김 정 김진아 김하정 스티븐 레인지
백혜영 서상민 신영환 안현정 양순화
오세정 이곤수 정원철 정한울 최은혜

10년을

돌아보다 Our First Ten Years



세계 속의 EAI

강산도 변한다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세월 속에서도 EAI의 열정만큼은 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열정이 더욱 뜨거워졌다고 해야겠습니다. EAI가 지난 10년 동안 이루어낸 성과가 그렇게 많고 있습니다. 특히 그 10년이 유난히도 요동쳤던 문명사적 전환기였다는 사실을 돌아켜 보면 그 성과의 의미는 남다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EAI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기관이 되었습니다. 2005년부터 영국 BBC방송사가 주관하는 국제여론조사 컨소시엄에 한국 유일의 연구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는 미국 맥아더 재단 아시아안보 이니셔티브의 핵심연구기관으로 선정되어 동북아 안보 연구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발표한 세계 싱크탱크 순위에서 아시아 지역 1,200개 정책연구기관 가운데 12위로 선정되었습니다. 10년의 성과는 지구적 차원의 싱크탱크 네트워크 설립 과정에서도 EAI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스페인의 프리데 재단은 아고라 아시아-유럽 네트워크를 구축할 아시아 지역의 14개 대표적인 정책연구기관을 선정하면서 EAI를 한국 대표기관으로 초청했습니다. 미국 외교관계평의회는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21개의 정책연구기관을 모아 발족하는 싱크탱크세계평의회의 한국 대표기관으로 EAI를 지명했습니다.

개원식에서 EAI를 세계수준의 싱크탱크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흐른 지금 EAI는 세계 유수의 정책연구기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싱크탱크로 성장하여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미래 한국의 자산으로 우뚝 섰습니다. 그렇지만 EAI에게 개원 10주년은 '별써'가 아닌 '아직' 일 따릅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EAI가 해야 할 일이 더욱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EAI가 만들어갈 새로운 10년의 그 열정을 지켜봐 주십시오.

이사장 이흥구

다음 10년을 바라보며

EAI는 예산과 인력에 비교하여 큰 연구업적을 쌓으면서 급속히 성장했습니다. 국가안보와 국내 거버넌스에 관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실증분석이 담긴 정책연구들을 해오면서 한국은 물론 해외에서도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실 있는 국가정책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연구물들로 정책기관, 학계, 시민사회에 기여했습니다. 국제적 네트워크로 한국의 공공외교 증대에도 기여했습니다.

EAI는 나라밖으로부터의 과감한 연구프로젝트 수주와 국내 후원자들의 정성 어린 지원을 통해 어렵게나마 재정적 자립을 해왔습니다. 독자적 연구와 독립적 재정으로 정부 부처나 대기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대부분의 국내 연구기관과 차별화되는 EAI 모델을 제시한 셈입니다. 오늘의 성공이 있기까지 EAI 지식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온 참여 학자와 전문가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식네트워크를 재정적으로 지원해주신 후원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한 명으로 시작하여 열 다섯 명으로 늘어난 스태프 선생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그들의 열정, 끊임없는 혁신, 성실함이 없었다면 오늘의 EAI는 없었을 것입니다. 연구, 행정, 프로그램 기획, 행사 등 각종 활동에서 이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10년은 EAI의 두 번째 도약의 기간이 될 것입니다. 첫 10년의 발전된 모습보다 훨씬 성장한 모습으로 다음 20주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의 발전이 멈추고 제자리 걸음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점은 EAI 향후 10년의 성적표는 대한민국 싱크탱크의 새로운 모델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좋은 모델을 지속 가능하게 하고 더욱 발전하게 만든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EAI는 더욱 발전된 지식네트워크를 토대로 한국의,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굿 거버넌스를 창달하는 미션을 잘 수행할 것 입니다. 그러한 멋진 20주년을 꿈꾸며 '우리'는 서로 돕고 보태려 합니다. 그 '우리'는 대한민국 표 멋진 싱크탱크를 우뚝 세우려는 뜻을 같이 하는 연구자, 후원자, 행정 스태프, 연구물의 수요자인 정책담당자와 시민들입니다. 2022년, EAI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참여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원장 이숙중

EAI의 꿈, 삶, 앞 그리고 함

열들을 축하합니다. EAI는 여러 후원자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4대 목표를 향해 지난 10년 동안 전력 질주해 왔습니다.

첫 목표는 단순한 싱크탱크가 아니라 드림탱크였습니다. 꿈은 원래 꾸민다는 뜻입니다. 21세기의 문명사적 변환을 맞이해서 새로운 질서를 꾸미기 위한 지구적 꿈의 각축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치열합니다. 제대로 된 꿈을 꾸는 나라와 개인만이 지구 무대의 주인공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EAI는 우리 사회의 새 꿈꾸기를 선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냉전시기의 단순외교를 넘어서서 21세기 미중시대에 걸맞은 복합외교를 제시했습니다. 갈등과 긴장의 북한문제에 대한 21세기적 해법으로 공진전략을 내놓았습니다. EAI의 작은 꿈이 한국, 한반도, 동아시아, 그리고 세계를 새롭게 꾸며나가는 데 핵심적 촉매 역할을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목표는 21세기 우리가 살아야 할 새로운 삶을 입체적으로 고민하는 싱크탱크였습니다. 미소 냉전시대에 이어 탈냉전의 미중시대가 찾아 왔으나 남북한은 여전히 냉전의 속제를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한국과 선군북한은 각기 다른 21세기의 당면과제 앞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앞장서서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10년을 매진해 왔습니다.

세 번째 목표는 우리가 겪는 21세기 복합적 삶의 바로 알기였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은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민주화의 격동기를 겪고 있는 한국은 구시대의 철늦은 보수와 진보의 눈으로 새롭게 진보하는 현실을 읽어보려는 무리한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EAI는 새 시대를 단안(單眼)이 아닌 복안(複眼), 일진(一進)이 아닌 공진(共進)이라는 새로운 눈으로 올바르게 보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마지막 목표는 단순히 생각하는 싱크탱크가 아니라 실천하는 싱크탱크였습니다. 남이 아니라 우리 삶을 제대로 품고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노력은 최종적으로 실천을 통해서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한반도, 동아시아, 그리고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결책을 새롭게 마련하려는 국내의 지식무대에서 EAI는 새로운 스타로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멀니다. 후원자 여러분들의 품속에서 몰라보게 큰 EAI의 지난 10년은 큰 뜻을 품고 거대하게 내디딘 우렁찬 첫걸음이었습니. 앞으로 보다 뜨거운 사랑 속에서 커갈 EAI의 100년은 당면한 4대 목표를 우리 사회의 선두주자로서 달성하는 아찔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지구넷21 회장 하영선

싱크탱크의 성공조건

아이디어로 세상을 바꾸겠다고 읊지로로 했었습니다. 단 한 명의 스텝과 함께 소박한 동지를 틀었습니다. 2002년 늦봄의 어느 날, EAI는 그렇게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조직이 그렇게 큰 꿈을 어떻게 펼칠 수 있을지 자문했습니다. 자기 능력의 한계를 냉철하게 따져보았습니다. 결국 자기 혼자 모든 일을 하려 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함께 꿈을 나누고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했을 때 EAI의 길이 열렸습니다. EAI에 대해 제가 품고 있던 꿈은 저만의 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다듬을 연구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만들어진 정책제언에 현장감을 불어 넣어줄 전문가들이 함께 했습니다. 정책제언을 시기적절하게 세상 속으로 전파할 언론인들이 함께 했습니다. 아이디어를 믿고 연구원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한 후원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EAI는 이렇게 아이디어의 힘을 확신한 EAI 공동체 모두의 노력으로 열린 길입니다.

그 길을 처음 걸어갈 때 보지 못했던 EAI가 지금은 보입니다. 한국에서는 보기 드문 독립적인 민간 싱크탱크로서 그 정체성을 단단히 세웠습니다. 세계적 싱크탱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그 국제적 위상 또한 높아졌습니다. 공론장의 정책담론을 바꾸고 혁신적 연구의제를 개발하는 능력이 더욱 커졌습니다. 새롭고 객관적인 지식을 생산하여 오로지 공익을 위해 활용하겠다는

다짐을 꾸준히 지켰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성과입니다. 그렇게 정성스럽게 닦아 온 길 위에서 묵묵히 걸어 가고 있는 EAI 공동체에 속한 모든 이들에게 진심으로 찬사를 보냅니다.

별써 10년이 지나 갔고, 또 10년이 지나 갈 것입니다. 다시 앞을 바라보면 아직도 길은 멀기만 합니다. 쫓아 가야 했던 글로벌 스탠더드를 이제 EAI 스스로가 창출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벤치마킹하면 족했던 EAI는 이미 과거의 것입니다. EAI를 벤치마킹하려는 기관이 더욱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선도하려면 남다른 책임감과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거창한 구호를 줄이고 작은 실천을 늘려야 합니다. 성공하는 싱크탱크는 더욱 겸허해져야 합니다. 결국 초심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EAI의 차별성은 모두가 알고 있는 진리를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에 옮긴다는 점에 있습니다. EAI가 앞으로도 그 다짐을 잊지 않고 걸어갈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EAI와 같은 꿈을 꾸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에 동참할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 도정에 늘 함께 하겠습니다.

설립자 김병국



지구상에는 6,480개의 싱크탱크가 있습니다.
아시아에는 1,200개의 싱크탱크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아시아에서 12번째로 우수한 싱크탱크가 있습니다.

EAI

#12 Think Tank in Asia

The 2010 Global Go-To Think Tanks Rankings

영국 BBC방송사가 선택한 한국 유일의 월드 서비스 폴 참여기관입니다.
미국 맥아더재단이 선택한 한국 유일의 아시아안보 이니셔티브 핵심기관입니다.
스페인 프리데재단이 선택한 한국 유일의 아고라 아시아-유럽 네트워크 제휴기관입니다.
미국 외교관계평의회가 선택한 한국 유일의 싱크탱크세계평의회 창립기관입니다.

목차

10년을 돌아보다

Our First Ten Years

이사장 메시지

원장 메시지

지구넷21 회장 메시지

설립자 메시지

변화에 맞춰, 제도를 설계하다

Designing Better Governance

08

세계를 보고, 전략을 짜다

Crafting Grand Strategy

12

민심을 읽고, 쟁점을 찾다

Analyzing Public Opinion

16

지혜를 나누고, 통찰을 얻다

Sharing Wisdom

20

사람을 키우고, 미래를 꿈꾸다

Nurturing the Future

24

희망을 듣고, 열정으로 답하다

Supporting EAI

28

EAI 커뮤니티

연혁

출판

변화에 맞춰, 제도를 설계하다 Designing Better Governance



2006년 9월 18일
인프라비전 포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EAI 연구패널

2005년 9월 9일
동아시아 자본주의의 다양성 국제학술회의
데이비드 소스키스 옥스퍼드대 교수와 피터 구르비치
캘리포니아-샌디에고대 교수



2006년 10월 30일
인프라비전 포럼 손학규 전 경기도 지사와 EAI 연구패널

변화에 맞춰, 제도를 설계하다

EAI는 생각했습니다. 좋은 거버넌스는 권력의 문제를 회피하고서는 얻을 수 없다고, 그래서 권력을 직시하고 그것을 어떻게 순치할 수 있을지 지혜를 모았습니다. 제도의 변화로부터 해답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도 변화할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좋은 제도의 설계가 EAI 거버넌스 연구의 중심에 자리잡은 현유입니다.

대통령 권력에서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개혁논의는 권력의 핵심 대통령과 그 비서실에 초점이 맞추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실패가 국민의 실패가 되고 국가의 실패가 되는 악순환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 또한 절박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대통령의 성공조건》입니다. 우선 학술연구자들과 정책결정자들 사이의 높은 벽을 허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장의 소리가 담겨 있지 않은 학술적 담론은 공허하고, 학술적 담론으로 걸러내지 않은 현장의 소리는 맹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두 집단이 직접 만나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내놓은 살아 숨쉬는 개혁의 청사진이 태어났습니다. 그 반향은 문제인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성공조건》을 참조하여 실제로 비서실 기구를 개편하였다고 자신의 자서전에서 밝힌 것처럼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권력의 개혁은 그 상대인 국회 권력의 개혁을 필요로 하고, 두 권력기관의 개혁은 보다 넓은 정치권 전반의 개혁을 시야에 넣어야 가능합니다. 《정치개혁의 성공조건》, 《정치개혁과 국회개혁》, 그리고 《국회의 성공조건》은 하나의 정책연구가 어떻게 또 다른 정책연구로 밀접하게 연결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이렇게 파생된 연구들을 하나로 묶어보면, 정치개혁은 결국 한 개인이 아니라 힘을 가진 세력이 정책형 정치인이 되어야만 그 첫걸음을 내딛게 된다는 큰 그림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국회의 거버넌스 구조를 바꾸고 그 운영과정을 변화시키는 미시적 제도변화의 필요성을 깨닫게 합니다.

《대통령직 인수 성공조건》은 《대통령의 성공조건》으로부터 보다 직접적으로 파생된 연구결과입니다. 그 핵심에는 실패한 대통령직 인수가 실패한 국정운영을 낳는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성공은 대통령직 인수 성공의 함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의 철학과 비전을 잘 알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를 정책으로 실현하는 방법을 아는 전략적 정

책전문가들이 인수를 담당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4년을 채 못 버티고 포말처럼 사라지는 우리나라 정당의 모습을 지켜보다가 문득 의회민주주의가 잘 이뤄진다는 영국으로 고개를 돌려 파생된 연구결과가 《보수정치는 어떻게 살아남았나?》입니다. 과거의 가치, 질서, 이해관계를 지킨다는 보수 정파가 세월의 격변 속에서 어떻게 정치적 정체성을 유지하며 또 자신을 지지하도록 유권자를 설득해 낼 수 있었는지를 역사적으로 들여다 보았습니다.

보수와 진보라는 대립 구도만으로는 한국 민주주의의 실태를 불러오는 새로운 변화를 포착할 수 없습니다. 《정제를 살리는 민주주의》는 모든 정부의 업적은 성과로 평가 받는 것이고, 이러한 성과의 핵심은 지금 단계에서는 경제선진화라는 시각에서 한국정치를 진단합니다. 《본권헌법》은 청와대의 주인이 보수가 되는 진보가 되는 국정 운영은 민주화, 정보화, 세계화라는 상층의 시대변화에 역행하는 중앙집권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현실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세계화 제2막》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 국제사회에 대한 관여와 기여를 높이려는 한국외교, 다원화되는 한국사회와 정치 등 제반 영역의 문제를 잘 아우르는 세계화의 밑그림이 부족하다는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이처럼 경제선진화, 본권화, 세계화 등의 정책의제는 보수만을 위한 정책의제 혹은 진보만을 위한 정책의제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생산적인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면 국민 전체를 위한 정책의제를 중심으로 공론장의 담론구조가 다시 짜여야만 합니다. 《한국의 내셔널 어젠다》가 당리당락에 따른 쟁점이 지배하기 이전에 일찌감치 국민과 연구자, 전문가들이 내셔널 어젠다의 공론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



2008년 2월 12일
소프트파워 한자회의
손열 일본연구센터 소장



2010년 12월 15일

제4회 한미동맹 컨퍼런스

조윤선 한나라당 의원, 이숙종 EAI 원장, 윌트 셔프 한미연합사령부 사령관, 김선기 정책시장



세계를 보고, 전략을 짜다

Crafting Grand Strategy



2011년 10월 21일
제5회 한미동맹 컨퍼런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2006년 5월 23일
한미동맹 로드맵 컨퍼런스
알렉산더 버시비우 주한미국 대사



2009년 11월 3일
제3회 한미동맹 컨퍼런스
캐슬린 스티븐슨 주한미국 대사

세계를 보고, 전략을 짜다

EAI는 생각했습니다. 19세기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21세기의 국가목표를 제대로 설정해야 한다고. 그래서 세계의 변화를 바라보고 그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비전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한 국민들이 전략적 사고에 익숙해지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전략적 사고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자리잡으면 문제의 원인을 심층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능력 또한 커지기 때문입니다. EAI 외교안보 연구가 국가대전략의 수립을 핵심 의제로 삼는 연유입니다.

큰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부터 국가대전략 설계에 나섰습니다. 한국이 생존경쟁을 펼칠지 21세기의 세계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동시에 먼 과거로부터의 교훈과 먼 미래에 대한 예측을 일관된 분석틀로 통합하여 오늘 의 눈으로 보아야 했습니다. <21세기 한국외교 대전략>(2000)이 과거, 현재, 미래라는 복합 시간 축과 지구, 동아시아, 한반도, 국내라는 복합 공간 축 속에서 한국이 당면한 문제의 시공간적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이유입니다. 복합적 성격의 세계는 복합적 성격의 연구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EAI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체 패널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연구결과를 발표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1세기는 북한화를 위한 변환의 세기라는 <21세기 한국외교 대전략>의 결론을 자신의 취임사에 인용하고, 외교통상부 내부에 복합외교 연구모임을 정례화했습니다. 한국외교의 현장에 EAI의 정책연구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동아시아 공동체>(2008)는 21세기 동아시아 공동체론이 현실의 어려움을 과소평가하고 그 미래 가능성을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내의 동아시아 담론의 신화성을 따집니다. 복합의 세기를 만나 시작된 세계의 변화를 정확하게 읽어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전략이자 제도적 장치인 동맹을 제대로 짚아갈 수 있다는 주장은 <21세기 신동맹>(2010)에서 펼쳐집니다. 북한의 21세기 발전전략은 무엇이어야 하는가라는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북한 문제를 다룬 <북한 2032>(2010)는 북한의 변화할 필요란 것이 아니라 남한 및 주변국가의 동시적 변화 혹은 '공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위기와 복합>(2010)은 지난 10년 동안 진행된 세계 차원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다시 해석하여 합니다. 새 시대의 명분에 어울리는 설

계도를 마련하느라 바빠 움직이는 미국과 신세계질서 재건축의 설계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중국 사이에서 새로운 세계질서가 주조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학술적 이론은 긴장감 있게 현실의 변화를 품으려 해야 하고, 현실의 변화는 학술적 이론으로 항상 재해석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한 연구 결과들입니다.

EAI는 일찍부터 중국의 부상을 외교안보 정책연구의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2020 중국 리스크>(2007)는 중국경제가 안고 있는 다양한 불확실성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는 한국의 생존과 발전전략을 논하는 것이 공허하다는 진단 아래 가까운 미래의 중국 리스크를 예측한 시도입니다. <중국의 미래를 말하다>(2009)는 그 시야를 정치, 사회, 외교, 안보의 영역으로 넓히고, 중국 내부의 목소리까지 담아 종합적인 미래 예측을 시도했습니다. 중국의 부상은 분명 일본으로 하여금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확장적 관여와 지역을 넘어선 대외전략 수립이라는 딜레마에 빠져 들게 하고 있다는 시선에서 일본의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을 재탐색한 결과는 <일본과 동아시아>(2011)에 담겨 있습니다.

국가대전략 수립을 위한 커다란 밑그림을 밀도 있게 묘사하는 한편, 당면한 현안을 제대로 이해하려는 노력 또한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한미동맹의 비전과 과제>(2008), <북핵위기와 한반도 평화>(2006), 그리고 <변환시대의 한미 안보협력>(2008)은 그러한 노력의 산물입니다. 냉전과 탈냉전 동맹을 넘어선 북핵동맹을 제안했습니다. 핵무기를 분해 하듯 2005년의 미북공동성명을 조심스럽게 해체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논의는 한미 양국의 미래 동맹체제에 대한 공동 비전의 마련을 선결조건으로 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렇게 가능한 한 선입견 없는 객관적 시각으로 초당파적 정책 제언에 전념했습니다. ■



2008년 3월 18일
제13차 지구평화포럼
T.J. 뎀벨
캘리포니아-버클리대 교수



2011년 2월 15일
추원자 모임
무토 마사토시 주한일본 대사



2007년 1월 15일
제8차 한미미디어얼로그 21
버넬 뎀 한미연합사령부 사령관, 전여욱 한나라당 의원, 이흥구 EAI 이사장

아시아안보 이니셔티브 MacArthur Asia Security Initiative

맥아더 재단은 생각했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갈등 완화 및 평화 구축에 기여할 정책대안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그래서 아시아안보 이니셔티브를 운영할 능력 있는 정책연구기관을 지원하여 싱크탱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그 중심 역할을 수행할 명망 있는 싱크탱크를 찾았습니다. 결론은 EAI였습니다. 2009년 맥아더 재단은 동북아 안보 도전 클러스터를 주도할 핵심기관으로 EAI를 선정했습니다. 한국 유일의 핵심기관인 EAI는 지난 3년 동안 클러스터에 속한 6개 싱크탱크들과 활발한 인적 교류를 통해 비정부간 협력을 도모해 왔습니다. 또한 동맹질서, 북한선진화, 동북아 경제성 등 세 가지 정책연구 테마에 기초하여 다양한 연구 결과를 글로벌 지식사회로 전파해 왔습니다. 맥아더 재단은 지금까지의 정책연구 결과를 높이 평가하여 EAI에 대한 4차년도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아시아안보 이니셔티브를 통해 EAI는 아시아안보연구의 새로운 글로벌 스탠더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민심을 읽고, 쟁점을 찾다 Analyzing Public Opinion



2011년 11월 10일
제3차 정책미래발전 대토론회
정한을 EAI 수석연구원



2007년 10월 29일
국가대전망 강연회
이재열 사회학회 연구패널 위원장



2008년 12월 11일
소프트파워 국제학술회의
안 델리센 네덜란드 국제관계 연구소 소장과
피터 카헨스타인 코넬대 교수

민심을 읽고, 쟁점을 찾다

EAI는 생각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국민을 감동시키는 정책은 만들어질 수 없다고, 그래서 민심을 정확히 읽고 쟁점이 무엇인지를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밝히고자 했습니다. 여론의 향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여론조사만큼 다수 국민들의 국정 현안에 대한 의견과 정책선호를 가장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EAI 여론분석 연구는 쟁점 속의 민심, 민심 속의 쟁점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일을 중점 과제로 삼았습니다.

선거는 주기적으로 국민의 정책선호를 가장 집약적으로 잘 보여주는 정치적 의례입니다. EAI의 여론분석 연구가 2002년 대통령 선거를 첫 번째 연구대상으로 삼은 이유입니다. 우선 틀에 박힌 기존 여론조사의 관행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마치 청마 보도를 하듯 주요 후보의 지지율을 비교하는 여론조사는 21세기형 지도자의 자질, 능력, 노선 및 정책을 검증하기에는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정책을 일반 대중의 선호에만 따를 경우 수반되는 포퓰리즘의 위험도 사전에 차단하고자 했습니다. 그 고민의 결과가 <2002 대선평가와 노무현 정부의 과제>(2003)와 <노무현 정부의 딜레마와 선택>(2003)입니다. 전자는 400명이 넘는 전문가들이 참여한 집단적 평가를 수록했고, 후자는 다수의 국민들이 품은 신정부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쟁점 별로 탐색했습니다. 정책담당자들이 여론의 향배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국정운영의 방향을 정한다면 과거 정부의 실패를 피할 수 있다는 기대에서 여론조사의 결과를 널리 공개하고 공유하는 전통 또한 새롭게 수립했습니다. 이러한 원칙들을 구현한 <여론브리핑> 시리즈는 106호까지 발간되었고,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중국 해방일보 등 해외 언론사에서 그 분석 결과를 인용할 정도로 공신력이 높습니다.

한국의 선거 및 여론분석 연구에 신기원(新紀元)을 연 것은 2006년 지방선거를 포착한 <변화하는 한국유권자>(2007)입니다. 다른 어떤 기관도 시도한 바 없는 패널조사기법을 도입하여 유권자의 의식과 태도가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한 정확한 추적과 분석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또한 중앙일보, 서울방송, 그리고 한국리서치와의 탄탄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연구결과를 지면과 전파를 통해 널리 파급시키는 전범(典範)을 창출했습니다. 혁신적 분석기법과 신속한 파급경로를 결합시킨 연구기획은 이후 2007년 대통령 선거를 다룬 <변화하는 한국유권

자 2>(2008), 2008년 국회의원 선거를 다룬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3>(2009), 그리고 2010년 지방선거를 다룬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4>(2010)에서 지속적으로 펼쳐졌습니다.

EAI는 경험적 자료의 뒷받침이 없는 이론적 주장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당연시되었던 한국정치 담론들을 하나하나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시리즈는 동일한 응답자를 반복 조사하여 관찰한 결과를 토대로 쟁점 속 유권자의 모습을 투표 여부에서부터 투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투표 선택 자체의 변화에 이르기까지 답답하게 그려내고자 노력했습니다. 정당지지의 재원은 일시적인 것인가 아니면 구조적인 것인가, 386세대의 부상은 연명 효과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세대 효과에 의한 것인가, 상충적 태도를 가진 유권자는 민주주의의 적인가 아니면 바람직한 요소인가 등 한국의 선거 및 여론분석에서 결코 피할 수 없는 질문들에 답하려 했던 것입니다.

EAI는 한국인이 원하는 정책과 정치를 넘어선 곳에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쉽게 의문을 품기 어려웠던 국민 정체성을 실증적 정책연구의 영역으로 끌어들이었습니다. 한국인은 누구인지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의 국가정체성과 한국정치>(2007)와 <한국인, 우리는 누구인가?>(2011)는 그렇게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실증적 해답의 편린(片鱗)들을 모아서 만든 연구 결과입니다. 이렇게 시차를 두고 국민 정체성 조사를 실시하여 그 변화와 지속을 비교분석적 시각에서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의 의식 속에 과거와 현재, 미래가 어떻게 투영되어 있는지를 들여다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사회 내부 구성의 다양성이 더욱 증대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정체성의 속성도 조금씩 달라져 가고 있었습니다. 경험적으로 밝혀진 변화하는 국민 정체성은 오랜 시간 동안 단일민족의 신화 속에 살아온 한국인들에게는 새로운 도전일지 모릅니다. ■



2009년 9월 11일
동아시아 평화 컨퍼런스
이동률 중국 연구패널 위원장



2007년 10월 29일
국가대전략 강연회
강원택 시민정치 연구패널 위원장



2005년 8월 19일
미국의 리더십과 국제여론 국제학술회의
로버트 사피로 컬럼비아대 교수와 벤저민 페이지 노스웨스턴대 교수



지혜를 나누고, 통찰을 얻다 Sharing Wisdom



2006년 2월 13일
제8차 지구넷21 포럼
로버트 아인혼 미국 전략국제문제
연구소장 선임고문



2008년 2월 12일
소프트파워 강연회
조셉 나이 하버드대 교수

2005년 7월 27일
도라산 평화·인권 강연회
메리 로빈슨 전 아일랜드 대통령



2009년 11월 3일
제3회 한미동맹 강연회
토머스 크리스텐슨 프린스턴대 교수



지혜를 나누고, 통찰을 얻다

EAI는 생각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는 한 사람의 독백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생겨난다고, 그래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경쟁 분야의 전문가들을 한 자리에 모아 쟁명하는 공론장을 열고자 했습니다. 현인들 사이의 해안이 서로 다른 각도에서 쟁점을 비추면 문제의 원인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로부터 널리 쓰일 수 있는 정책적 해결책이 마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EAI가 포럼과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현인들의 지혜를 나누고 시대를 앞서는 통찰을 얻고자 하는 연유입니다.

아이디어는 국경을 넘어 퍼져 나가야 합니다. 상충하는 국가이익을 조율하고 국가간 공동으로 추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의 폭을 넓힐 방안을 찾았습니다. 2004년 발족한 《한미다이얼로그 21》은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주한미대사관, 주한미군, 주한미상공회의소의 고위인사들과 만나 EAI의 정책제언을 토론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공외교체널로 자리잡았습니다. 2008년부터 개최된 《평택미래발전 대토론회》와 2011년에 시작된 《뉴평택 지식포럼》에서 EAI는 평택시와 주한미군의 공동 번영과 발전을 도모하는 가교의 역할을 맡아 미래형 도시계획의 청사진을 두 기관과 함께 설계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 창설한 《한중 동북아안보대화》와 《한호 리더십 포럼》을 통하여 공공외교의 폭을 서쪽으로 남쪽으로 넓히고 한국의 전문가들이 EAI의 정책 아이디어를 중국 및 호주의 전문가들과 토론하는 민간외교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2009년부터 시작된 《스마트 토크 포럼》은 스트로브 벨벳 브루킹스 연구소 소장 등 학술지식과 정책마인드를 겸비한 해외 전문가들이 창의적인 견해를 제시하고, EAI 지식네트워킹에 속한 국내 학자들과 대화를 펼치는 글로벌 공론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는 생산자가 아니라 사용하는 소비자가 주인입니다. EAI가 세상에 내놓은 정책 아이디어는 검증 거쳐 사회로 전파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2004년 출범한 《지구넷 21 포럼》은 국내외 고위 외교안보 정책결정자들의 정책제언을 직접 접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학자와 언론인으로 이루어진 EAI의 전문가 집단이 그것을 비판적으로 토론하면서 국민적 컨센서스를 모색해 왔습니다. 한국의 정치지도자들에게 EAI의 정책연구결과를 설명하여 미래한국의 지적 인프라를 확장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인프라비전 포럼》은 2006년부터 시작되어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 손학규 민주당 의원, 김

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 등을 초청해 서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EAI는 저명한 해외연구기관과 함께 컨퍼런스를 조직하여 정책 아이디어를 국제적으로 확산시키고 노력했습니다. 2003년 하버드대와 공동으로 마련한 《신북미 아메리카나 국제학술회의》와 북미 고교바초프 재단과 공동으로 개최한 《동아시아의 평화, 발전, 지역주의 국제학술회의》 등이 대표적인 경우이며, 그 결과물은 《Between Compliance and Conflict》(2009)와 《Power and Security in Northeast Asia》(2007)로 각각 발간되어 EAI의 정책연구를 국제적으로 알렸습니다. 2005년 캘리포니아-샌디에고대와 공동으로 주최한 《동아시아 자본주의의 다양성 국제학술회의》와 2006년 스탠포드대와 공동으로 마련한 《동아시아의 기업개혁과 체제재편 국제학술회의》 또한 이러한 노력의 산물이며, 그 결과물은 《Adapt, Fragment, Transform》(2009)으로 발간되었습니다.

한 번의 대화만으로는 충분히 다듬어질 수 없는 중요한 정책의제도 있습니다. EAI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시간을 두고 정기적으로 모여 쟁론을 펼쳐야 하는 정책적 아이디어를 컨퍼런스를 통해 녹여내고자 했습니다. 2008년부터 개최해 온 《한미동맹 컨퍼런스》는 그렇게 장기적인 시야에서 21세기 한미관계를 종합적으로 바라보고자 한 노력의 시발점입니다. EAI의 시그니처 컨퍼런스로 자리잡은 《한미동맹 컨퍼런스》는 2010년 신미국안보센터와 공동으로 마련한 네 번째 회의를 포함하여 모두 다섯 번에 걸쳐 국내외 전문가들의 탁견을 집약해 오고 있습니다. 2008년에 열린 《소프트파워 현재회의》는 국내 공론장에 공공외교와 소프트파워의 중요성을 환기시킨 또 하나의 시그니처 컨퍼런스입니다. EAI는 《소프트파워 현재회의》의 논의를 발전시켜 시카고 국제문제 협회와 공동으로 《소프트파워 국제학술회의》를 2008년 서울에서, 2009년 시카고에서 각각 개최하고 그 결과물로 《Soft Power in Asia》(2009)와 《Public Diplomacy and Soft Power in East Asia》(2010)를 각각 출판했습니다. ■



2008년 7월 3일
제1회 한미동맹 컨퍼런스
책 크리우치 전 백악관 국가안보 무보좌관과
김희상 전 대통령비서실 국방보좌관



2009년 11월 5일
제2회 한호 리더십 포럼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2010년 12월 1일
제13차 스마트 토크 포럼
스트로브 벨벳 브루킹스연구소 소장,
리처드 부시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위원, EAI 연구매널



사람을 키우고, 미래를 꿈꾸다 Nurturing the Future



2010년 3월 3일
사회과학 대강화
하영선 지구넷21 회장



2009년 11월 3일
제3회 한미동맹 컨퍼런스
토머스 크리스텐슨 프린스턴대 교수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
지아 징귀 베이징대 교수, EAI 인턴들

사람을 키우고, 미래를 꿈꾸다

EAI는 생각했습니다. 인재를 길러내지 않으면 나라의 장래는 밝을 수 없다고, 그래서 대중의 마음 속에 정책적 비전이 살아 숨쉬게 할 배움의 터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는 청년들의 가슴을 설레게 할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미래한국은 재능이 넘치고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들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AI가 교육과 인재개발에 힘써 사람을 키우고 미래를 꿈꾸는 연유입니다.

좋은 아이디어와 지식을 널리 알리고 싶었습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EAI의 정책제언이 사회 속에 퍼져나가기를 바랬습니다. 아일랜드의 첫 여성 대통령이자 유엔고등인권판무관으로서 평화의 정신을 설파하고 인권운동의 선봉에 서 온 메리 로빈슨 여사를 모시고 2005년에 개최한 《도라산 평화·인권 강연회》에는 그러한 열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2007년에 열린 《국가대전략 강연회》는 세계화, 정보화, 민주화 시대에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한다는 취지에서 EAI가 축적한 다양한 정책제언을 대중들에게 알렸습니다. 하버드대 조셉 나이 교수를 초빙하여 2008년에 가진 《소프트파워 강연회》는 주변 강대국에 둘러싸인 한국은 소프트파워가 강한 매력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기회였습니다. 2008년부터는 세 차례에 걸쳐 한국과 미국의 전직 대통령 안보보좌관 등을 초청하여 《한미동맹 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강연회에서는 미래의 한미동맹이 군사동맹을 넘어 다양한 영역에서 양국간 관계가 강화되고 협력이 증진되는 포괄적 동맹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2010년 여덟 번의 연속 강의 형태로 《사회과학 대강좌》를 열어 18세기 북한과부터 21세기 북한과까지 한국의 근현대사를 국제정치적 관점에서 풀어내는 대중 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하영선 지구넷21 회장이 연사로 나선 이 대강좌에서는 한국인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열강들의 거대한 힘 앞에서 우리가 나

아가야 할 길은 어디에 있는지를 역사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대강좌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결과물로 《역사 속의 젊은 그들》(com)이 출판되었습니다.

교육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리탐구를 그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진리탐구의 방식은 끊임없이 변화해야 합니다. EAI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한국의 대학교육을 바꾸고자 했습니다. 유학을 가지 않아도 세계적 석학의 아이디어를 직접 접할 수 있는 《글로벌 아카데미》는 이러한 취지에서 2006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정치학회장을 역임한 피터 카렌스타인 코넬대 교수 등 EAI 펠로우즈 프로그램에 선발된 우수한 해외학자와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정되는 한국의 대학생들이 쌍방향의 토론회 교육을 받들어 갑니다.

EAI는 2004년부터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용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200명이 넘는 젊은 그들이 EAI의 정책연구 및 포럼, 컨퍼런스에 참여하면서 미래에 대한 더 넓은 시야와 더 깊은 안목을 길러갔습니다. 인턴십을 수료한 학생들은 《에픽 스카이라이프》라는 모임을 결성하여 《에픽 영 리더스 컨퍼런스》를 2010년부터 개최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청년들을 대상으로 논문을 공모하여 EAI 지식 네트워크에 속한 학자들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우수 논문을 선정한 후 컨퍼런스에서 공중에게 발표하도록 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2011년 8월 17일
제2회 에픽 영 리더스 컨퍼런스
우수상 수상자 한택진

2011년 5월 25일
EAI 후원자 자녀 인보탐방



2010년 7월 8일
아시아안보 이니셔티브 2010 연례회의
EAI 인턴들

EAI 펠로우즈 프로그램 EAI Fellows Program on Peace, Governance, and Development in East Asia
헨리 루스 재단은 생각했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연구가 국제적 인문사회과학의 한 분야로 확고하게 뿌리내릴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절실하다고, 그래서 지역연구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실적 높은 정책연구기관을 후원하고자 했습니다. 새로운 유형의 지식 허브로 기능할 수 있는 싱크탱크를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결론은 EAI였습니다. 2005년 헨리 루스 재단은 동아시아의 평화, 거버넌스 및 발전을 위한 EAI 펠로우즈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 이외의 기관으로는 최초로 헨리 루스 재단의 후원대상 기관이 된 EAI는 이후 매년 전 세계 동아시아를 전공하는 5-6명의 학자를 선발하여 글로벌 아카데미 및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펠로우들은 서울, 베이징, 상하이, 도쿄, 타이베이의 제휴기관에 체류하면서 동아시아지역학 확립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는 대만 정경국 재단이, 2010년부터는 일본국제교류기금과 와이비엠/한국외국인학교가 펠로우즈 프로그램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듣고, 열정으로 답하다 Supporting EAI



2011년 2월 15일
후원자 모임



2006년 12월 12일
후원자 모임



2009년 8월 25일
후원자 모임



2007년 8월 29일
후원자 모임



희망을 듣고, 열정으로 답하다

EAI는 생각했습니다. 연구원의 재정을 정부나 기업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면 싱크탱크의 독립성을 키울 수 없다. 그래서 연구원의 재정 후원처를 다변화多邊化하여 이해상충의 위험을 줄이고 정책연구의 자율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정부주도형 싱크탱크와 기업주도형 싱크탱크가 주도하는 한국의 지식시장 생태계에서 비영리 싱크탱크가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찾았자 했습니다. 어떠한 외압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정책연구기관의 존재는 미래한국의 큰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EAI가 후원회를 조직하여 국민들의 희망을 듣고 열정적으로 정책아이디어를 생산하려는 연유입니다.

작은 액수라도 다수가 모이면 큰 힘이 됩니다. EAI와 함께 꿈을 꾸는 후원회원들은 연구원의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2003년 7명으로 출발한 EAI 후원회는 2011년 25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매달 보내주시는 소중한 후원금이 EAI의 정책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후원회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장기발전기금 또한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EAI는 정책 아이디어가 만들어지면 다양한 후원처를 물색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기관으로부터 재정지원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많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백아터 재단》은 2009년부터 외교안보 정책연구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펠로우스 프로그램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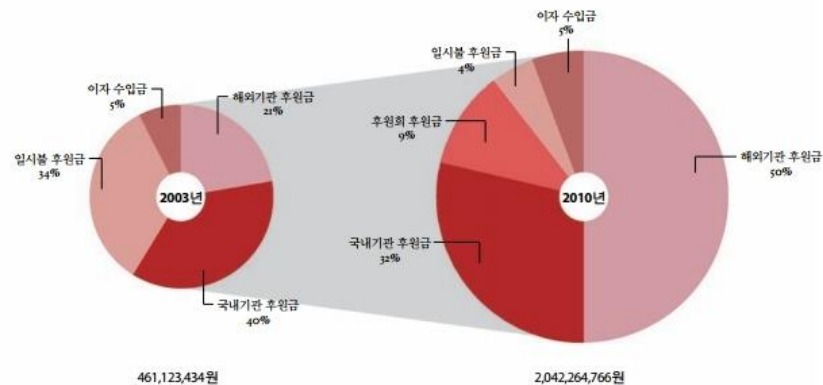
있었습니다.

국내기관 또한 EAI의 정책연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2008년부터 《평택시》는 한미동맹 컨퍼런스와 평택 시민대토론회를 지원했습니다. 소프트파워 컨퍼런스와 국제여론조사는 《한국국제교류재단》의 후원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중앙일보》와 《서울방송》으로부터는 선거패널조사 비용을 후원 받았습니다. 에픽 영 리더스 컨퍼런스는 《삼양사》의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와이비엠/한국의국인학교》는 펠로우스 프로그램을 재정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한국연구재단》, 《경기문화재단》, 《시도지사협의회》, 《조선일보》, 《매일경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 50개가 넘는 국내기관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다양한 정책연구사업을 추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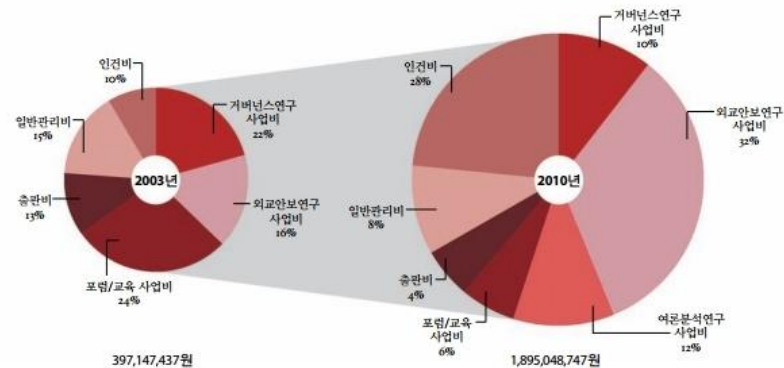
국내외 다수의 기관이 적극적으로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EAI의 성장과 성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부주도 혹은 기업주도의 싱크탱크가 지배적인 환경 속에서 EAI는 제한된 자원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싱크탱크들에게 대안적 모범을 제시했습니다. 그 모범은 활발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한 재정 확충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 기업, 그리고 대학으로부터도 자율적인 정책연구기관을 만들고자 하는 후원회원의 열정이 지금의 EAI를 있게 했습니다. ■



운영수입



운영지출



《헨리 루스 재단》, 《대만 장경국 재단》, 《일본국제교류기금》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시아 재단》, 《주한미국대사관》, 《북미 고르바초프 재단》, 《히말라야 재단》 등은 다양한 포럼과 컨퍼런스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국제여론조사 사업은 《글로벌스캔》과 《월드 퍼블릭 오피니언》으로부터 지원을 받

2005 BBC · 매일경제 · 한국리서치
공동 33개국 국제여론 연구패널
(2004-2005)

김병국(고려대), 김장수(고려대), 김태
현(중앙대), 민병원(서울산업대), 이내
영*(고려대), 이재열(서울대), 장진호
(연세대), 정원철(EAI), 정한울(EAI),
한준(연세대)

2005 글로브스캔 · 매일경제 · 한국
리서치 공동 22개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 연구패널(2004-2005)
김병국(고려대), 남궁곤(이화여대), 이
내영*(고려대), 이재열(서울대), 장진
호(연세대), 정원철(EAI), 정한울
(EAI), 최영종(이화여대), 한준(연세대)

시민정치 연구패널(2005-2007)

강원택*(숭실대), 김민전(경희대), 김
병국(고려대), 김장수(고려대), 김태
현(중앙대), 서현진(성신여대), 이내영*(고
려대), 이재열(서울대), 이현우(서강대),
임성학(서울시립대), 정원철(EAI), 정
한울(EAI)

주한외국기업인 여론 연구패널 (2005)

김병국(고려대), 이내영*(고려대), 이
시영(중앙대), 정원철(EAI), 정한울
(EAI)

매일경제 공동 한국 대표 경제 · 경 영학자 여론 연구패널(2005-)

이근*(서울대), 정원철(EAI)

2006 BBC · 매일경제 · 한국리서치
공동 35개국 국제여론 연구패널
(2005-2006)
김병국(고려대), 김장수(고려대), 김태
현(중앙대), 남궁곤(이화여대), 민병원
(서울산업대), 이내영*(고려대), 이숙종*(
성균관대), 정원철(EAI), 정한울(EAI)

2006 글로브스캔 · 매일경제 · 한국
리서치 공동 33개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 연구패널(2005-2006)
이재열*(서울대), 장진호(연세대), 정
원철(EAI), 정한울(EAI), 한준(연세대)

서울방송 · 중앙일보 · 한국리서치
공동 2006 전국지방선거 연구패널
(2005-2006)

강원택(숭실대), 김민전(경희대), 김병
국(고려대), 김장수(고려대), 김춘석(한
국리서치), 노익상(한국리서치), 박돈해
(한국리서치), 박종선(한국리서치), 서
현진(성신여대), 신소연(EAI), 신창은
(중앙일보), 심재웅(한국리서치), 유은
정(한국리서치), 이내영*(고려대), 이현
우(서강대), 임성학(서울시립대), 정원
철(EAI), 정한울(EAI), 현경보(서울방
송), 홍승현(EAI)

시카고 국제문제 협회 공동 7개국 대외인식 연구패널(2006)

김병국(고려대), 김태현(중앙대), 남궁
곤(이화여대), 민병원(서울산업대), 이
내영(고려대), 이숙종*(성균관대), 이태
환(세종연구소), 정원철(EAI), 정한울
(EAI)

한국일보 공동 정치안보의식 연구패 널(2006)

김병국(고려대), 김장수(고려대), 김태
현(중앙대), 이내영*(고려대), 이상협
(EAI), 정원철(EAI), 정한울(EAI)

미디어다음 공동 외교안보 및 경제 전문가 한미정상회담 주요쟁점 연구 패널(2006)

이내영(고려대), 정원철(EAI), 정한울
(EAI)

2007 BBC · 매일경제 · 한국리서치 공동 27개국 국제여론 연구패널 (2006-2007)

송문희(EAI), 이내영*(고려대), 이상
협(EAI), 정원철(EAI), 정한울(EAI)

2007 글로브스캔 · 매일경제 · 한국
리서치 공동 30개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 연구패널(2006-2007)
곽소희(EAI), 이근(서울대), 이내영*(
고려대), 이숙종(성균관대), 이재열(서
육대), 장진호(연세대), 정한울(EAI)

시카고 국제문제 협회 · 월드 퍼블릭
오피니언 공동 17개국 대외인식 연
구패널(2006-2007)

김병국(고려대), 김태현(중앙대), 남궁
곤(이화여대), 민병원(서울산업대), 이
내영(고려대), 이숙종*(성균관대), 이태
환(세종연구소), 정원철(EAI), 정한울
(EAI)

서울방송 · 중앙일보 · 한국리서치 공동 2007 대통령선거 연구패널 (2006-2007)

강원택(숭실대), 김민전(경희대), 김병
국(고려대), 김장수(고려대), 김춘석(한
국리서치), 박찬욱(서울대), 서현진(성
신여대), 신창은(중앙일보), 이내영*(고
려대), 이현우(서강대), 임성학(서울시
립대), 정원철(EAI), 정한울(EAI), 진
영재(연세대), 현경보(서울방송)

2007 중앙일보 공동 파워기관 신뢰 영향력 연구패널(2006-2007)

강원택*(숭실대), 곽소희(EAI), 이내
영(고려대), 이현우(서강대), 정한울
(EAI)

동아시아 소프트웨어 국제여론 연구 패널(2007-2008)

곽소희(EAI), 이내영(고려대), 이숙종*(
성균관대), 이신화(고려대), 이용욱(고
려대), 지병근(고려대), 정한울(EAI)

월드 퍼블릭 오피니언 · 경향신문 공 동 국제인권 연구패널(2008)

곽소희(EAI), 이내영(고려대), 이숙종*(
성균관대), 정한울(EAI)

서울방송 · 중앙일보 · 한국리서치 공동 2008 국회의원선거 연구패널 (2008)

강원택(숭실대), 곽소희(EAI), 권혁용
(고려대), 김민전(경희대), 김성태(고려
대), 김춘석(한국리서치), 박종선(한국
리서치), 박찬욱(서울대), 서현진(성신
여대), 신창은(중앙일보), 유성진(이화
여대), 이현우(서강대), 이내영*(고려
대), 임성학(서울시립대), 정한울(EAI),
진영재(연세대), 현경보(서울방송)

2008 중앙일보 공동 파워기관 신뢰
영향력 연구패널(2008)
강원택*(숭실대), 곽소희(EAI), 이내
영(고려대), 이현우(서강대), 정한울
(EAI)

2009 글로브스캔 공동 32개국 기업
의 사회적 책임 연구패널(2008-2009)
이내영*(고려대), 이숙종(성균관대), 정
원철(EAI), 정한울(EAI)

국민계층의식 연구패널(2009)

강석훈(성신여대), 강원택(숭실대), 구
인화(서울대), 권혁우(서울대), 이숙종*(
성균관대), 이재열(서울대), 정원철
(EAI), 정한울(EAI), 최강식(연세대)

2009 중앙일보 공동 파워기관 신뢰 영향력 연구패널(2009)

강원택*(숭실대), 이현우(서강대), 정
원철(EAI), 정한울(EAI)

파워정치인 신뢰영향력 연구패널 (2009)

이내영*(고려대), 정원철(EAI), 정한
울(EAI)

한국리서치 공동 2009 정치여론바 로미터 연구패널(2009)

서상민(EAI), 이내영*(고려대), 정원
철(EAI), 정한울(EAI)

매일경제 공동 정치안보의식 연구패 널(2009)

이내영*(고려대), 정원철(EAI), 정한
울(EAI)

이명박대통령 취임 1년 여론 연구패 널(2009)

이내영*(고려대), 이숙종(성균관대), 전
재성(서울대), 정원철(EAI), 정한울
(EAI)

월드 퍼블릭 오피니언 공동 20개국 국제여론 연구패널(2009)

이근수(EAI), 이내영*(고려대), 정원
철(EAI), 정한울(EAI)

2010 BBC · 글로브스캔 · 매일경제
공동 26개국 국제여론 연구패널
(2009-2010)

이내영*(고려대), 이숙종(성균관대), 정
원철(EAI), 정한울(EAI)

한국리서치 공동 2010 정치여론바 로미터 연구패널(2010)

서상민(EAI), 이근수(EAI), 이내영*(
고려대), 정원철(EAI), 정한울(EAI)

서울방송 · 중앙일보 · 한국리서치
공동 2010 전국지방선거 연구패널
(2010)

서상민(EAI), 이근수(EAI), 이내영*(
고려대), 정원철(EAI), 정한울(EAI)

고려대 세사이론연구소 · 중앙일 보 공동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연구 패널(2010)

강원택*(서울대), 문명재(연세대), 서
상민(EAI), 유민봉(성균관대), 윤인진
(고려대), 이근수(EAI), 이내영*(고려
대), 이숙종(성균관대), 이신화(고려대),
이용욱(고려대), 정원철(EAI), 정한울
(EAI), 황정미(고려대)

유권자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패널(2010)

서현진(성신여대), 이근수(EAI), 이내
영(고려대), 임성학(서울시립대), 정원
철(EAI), 정한울(EAI)

국정소통지수 산출과 국정소통 국민 인식 연구패널(2010-2011)

강원택(서울대), 서상민(EAI), 이근수
(EAI), 이내영(고려대), 이재열(서울대),
정원철(EAI), 정한울(EAI), 지병근(조
선대)

YTN · 중앙일보 · 한국리서치 공동
2011 정치여론바로미터 연구패널
(2011)

서상민(EAI), 이근수(EAI), 이내영*(
고려대), 정원철(EAI), 정한울(EAI)

한중 국민인식 연구패널(2011-)

서상민(EAI), 이내영(고려대), 이동훈
(동덕여대), 이동준(고려대), 이숙종(성
균관대), 이정남(고려대), 전재성(서울
대), 정원철(EAI), 정주연(고려대), 정
한울(EAI), 한석희(연세대)

*연구패널 위원장, 소속은 연구패널
당시를 기준으로 함.

박정희 시대 집합진

김병국(고려대) 김용석(성신여대) 김은미(이화여대) 김주홍(울산대) 김태현(중앙대) 김형아(호주국립대)	그레고리 노블(도쿄대) 조지 도밍게스(하버드대) 류상영(연세대) 문정인(연세대) 박길성(고려대) 박명림(연세대)	백창제(서울대) 에즈라 보켈(하버드대) 유석진(서강대) 이내영(고려대) 이민영(육군사관학교) 이영조(경희대)	이정훈(연세대) 임학희(고려대) 전병준(SK텔레콤) 한용식(국방대) 폴 허치크로프트(호주국립대) 홍성걸(국민대)
--	---	---	---

EAI 벨로우스

2005	제프리 브로드벤트 닐 다야망 하오 유판 데이비드 강 김버트 로즈엔 서재정	미네소타대 딕슨칼리지 콜게이트칼리지 다트머스칼리지 프린스턴대 코넬대	조나단 슈와르츠 신기욱 에델 슐먼겐 앨런 와이켄	뉴욕 · 뉴질랜드주립대 스탠포드대 캘리포니아-버바인대 테프츠대
2006	창 톤젠 자크 하이만 빅토리아 턴보 후이 피터 카펜스타인 T.J. 펄 엘리자베스 앤 위시닉	콜리엠헤매리칼리지 스미스칼리지 노퍽담대 코넬대 캘리포니아-버클리대 몽클레이주립대	매리 엘리스 하다드 제니퍼 린드 리처드 새뮤얼스 바바라 스탈링스 수전 윙터	웨슬리언대 다트머스칼리지 메사츄세츠공대 브라운대 워싱턴주립대
2007	매튜 켈슨 윌리엄 그라임스 김수연 이충영 유종성 왕 지안웨이	버몬트대 보스턴대 매릴랜드대 캘리포니아-버클리대 캘리포니아-샌디에고대 웨스턴산-스티븐스포인드대	스티브 켄 오랜 크로와상 애플린 고 이브 티베르겐 앤드류 여	콜로라도-보울더대 하이델베르그대 런던로얄홀웨이대 브리티시컬럼비아대 미국가톨릭대
2008	카타다 사오리	서던캘리포니아대	허 카이 유현주 정 유 피터 반 네스 토마스 버거	유타주립대 트리니티대 코네티컷대 호주국립대 보스턴대

후원기관

경기문화재단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우리홍소평	하버드대학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대한민국 통일부	와이비엠/한국외국인학교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경향신문	대한민국 특임장관실	월드퍼블리오피니언*	한국관광공사
고려대학교	대한상공회의소	유민문화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고려대학교 정의와 두뇌한국24 사업단	동북아역사재단	유진투자증권	한국노동연구원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동아시아재단	이슈투데이	한국리서치
국제개발연구센터*	매일경제	일본국제교류기금*	한국연구재단
글로벌스캔*	맥아디재단*	장경국제재단*	한국일보
나남출판	맬스필드재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한미협회
넥스트	미디어다음	조선일보	한샘
농심	북미고르바초프재단*	주원	한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삼성전자	주한미국대사관*	헨리루스재단*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삼양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현대그룹
대한민국 국방부	서암학술재단	중앙선데이	현대자동차
대한민국 국회	서울방송	중앙일보	히말라야재단*
대한민국 기획재정부	세계개발네트워크*	캘리포니아-샌디에고대학교*	
대한민국 대통령실	아산사회복지재단	명택시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재단*	포스코	*해외기관

후원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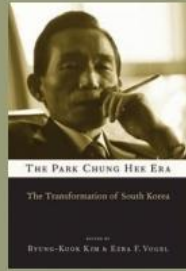
강국연	김예자	남윤호	성정은	윤우성	이종진	정주환	한선호
강문선	김용규	노익상	손대현	윤정림	이종구	정진영	한숙현
강은모	김용남	노호식	손명정	윤해성	이지원	정해일	한승혜
강천수	김용준	노환길	손 열	이곤수	이지희	조규환	한일봉
고병희	김용호	스티븐레이저	손재기	이규호	이진아	조동현	한정원
고혜선	김 원	류재희	송우엽	이 근	이창원	조상호	한지현
공성원	김 원	명정모	송지현	이근우	이창원	조은희	홍성원
공창위	김유상	문지옥	신관수	이기황	이충형	주 한	홍승복
곽준엽	김유주	민선식	신관식	이내영	이 항	조홍식	홍주희
구상환	김윤호	민선영	신동원	이동선	이해완	주미야	황성진
구유평	김은숙	박경수	신동준	이동훈	이현옥	주영아	황 수
구준서	김은영	박근아	신보희	이마리	이현희	주원사우회	황정원
권세원	김인섭	박대균	신성수	이미혜	이혜민	주진균	
권지원	김재두	박동선	신성호	이민교	이흥구	지병근	
기의석	김 정	박병우	신영준	이민자	이흥규	지해리	
김건호	김정은	박상민	신영환	이범주	이흥재	전선희	
김경순	김정은	박상용	신준희	이병인	이희정	전재욱	
김경지	김정하	박성만	심윤보	이봉재	임성민	전지은	
김관용	김 준	박성은	안건영	이상화	임성학	차국린	
김국형	김준희	박수진	안용찬	이선주	임현모	채규호	
김기정	김지영	박용준	안종익	이성광	임현진	채성일	
김기준	김진아	박창호	안현정	이성광	임흥재	최 건	
김동건	김진영	박재시	양순화	이소영	장동우	최규남	
김만호	김진혁	박재준	양호실	이숙종	장재훈	최동규	
김미영	김창수	박진원	엄찬섭	이시연	장진호	최병규	
김병표	김하정	박찬근	여동찬	이여희	장희진	최병준	
김봉하	김한기	박찬신	여현정	이영주	전경수	최복대	
김상래	김현성	배기옥	우미경	이원종	전명선	최신림	
김성경	김현전	배위섭	원종숙	이윤미	전혜진	최신영	
김시연	김형재	백송현	원종애	이인옥	정기용	최영안	
김양규	김형준	백해영	유승훈	이재섭	정당호	최은혜	
김연옥	김형찬	서상민	유정석	이정민	정병갑	최종호	
김영구	김효신	서은숙	유정수	이정은	정석희	최철원	
김영미	김희동	서정원	육은경	이정호	정영국	하형일	
김영섭	김희정	서창식	윤상민	이정희	정영진	한금현	
김영현	김희진	신승훈	윤용집	이종수	정원철	한상철	

<p>2002</p> <p>5월 개원 김병국 원장 취임 대통령의 성공 조건 연구패널 구성</p> <p>6월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JEAS) 편집권 및 지적 재산권 인수</p> <p>8월 정치사회 여론조사 실시 2002년 대통령선거 정책평가 여론조사 실시 박정희시대 연구패널 미국정치학회 연례회의 발표</p> <p>11월 린라이나 출판사와 JEAS 출판 계약 2002년 대통령선거 정책평가 연구패널 구성</p> <p>12월 한미관계 여론조사 실시 《대통령의 성공조건》 출판</p> <p>2003</p> <p>1월 《2002 대선평가와 노무현 정부의 과제》 출판</p> <p>2월 홈페이지 개설 노무현 정부 정책과제 여론조사 실시 국회의 성공조건 연구패널 구성 신탁스 아메리카 국제학술회의 개최</p> <p>3월 한국 경제개혁 사례 연구패널 구성</p> <p>4월 노무현 정부 1년 정책평가 연구패널 구성 북한핵대학 연구패널 구성</p> <p>6월 《노무현 정부의 딜레마와 선택》 출판</p> <p>7월 제1차 글로벌 포럼 개최</p>	<p>8월 노무현 정부 6개월 정책평가 여론조사 실시</p> <p>9월 동아시아의 평화, 발전, 지역주의 국제학술회의 개최</p> <p>12월 《정치개혁의 성공조건》 출판 《정치개혁과 국회개혁》 출판</p> <p>2004</p> <p>2월 노무현 정부 1년 정책평가 여론조사 실시</p> <p>3월 개발국가 이후의 동아시아 국제학술회의 개최</p> <p>5월 《국회개혁의 성공조건》 출판</p> <p>6월 여론브리핑 제1호 발간 국가안보 연구패널 구성 국가안보 연구패널 보고서 제1호 발간 제1차 한미다언어교 21 개최</p> <p>7월 시카고 국제문제 협회 공동 3개국 대외인식 여론조사 실시</p> <p>8월 한미동맹 로드맵 연구패널 구성 홈페이지 개편</p> <p>10월 지구넷21 창립</p> <p>2005</p> <p>1월 글로벌스캔 공동 22개국 기업 및 사회적 책임 국제여론조사 실시</p> <p>2월 주한외국기업인 여론조사 실시</p> <p>4월 시민정치 연구패널 구성 한국 경제개혁 사례 연구 연구보고서 발간</p> <p>5월 제1차 파워간 신뢰영향력 여론조사 실시</p>	<p>논쟁 속의 미국 국제학술회의 개최 《Between Compliance and Conflict》 출판</p> <p>7월 제1기 EAI 펠로우 선정 도라산 평화·인권 강연회 개최</p> <p>8월 미국의 리더십과 국제여론 국제학술회의 개최 2020 중국 리스크 연구패널 구성</p> <p>9월 동아시아 자본주의의 다양성 국제학술회의 개최</p> <p>10월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여론조사 실시</p> <p>11월 BBC·매일경제·한국리서치 공동 33개국 국제여론조사 실시 문견한법 연구패널 구성 2005년 연차보고서 발간 2005년 후원의 밤 개최</p> <p>12월 제1차 한국 대표 경제·경영 학자 여론조사 실시</p> <p>2006</p> <p>4월 전국지방선거 패널여론조사 실시</p> <p>5월 제1차 글로벌 아카데미 개최 글로벌스캔·매일경제·한국리서치 공동 33개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 국제여론조사 실시 한미동맹 로드맵 컨퍼런스 개최</p> <p>6월 《21세기 한국외교 대전략》 출판 동아시아의 기업개혁과 체제 재편 국제학술회의 개최</p> <p>7월 교육 및 조기유학 연구패널 구성</p>	<p>《경제를 살리는 민주주의》 출판 제2기 EAI 펠로우 선정</p> <p>9월 미디어다음 공동 외교안보 및 경제전문가 여론조사 실시 제1차 인프라비전 포럼 개최</p> <p>10월 《한미동맹의 비전과 과제》 출판</p> <p>11월 코리아 컨센서스 연구패널 구성 시카고 국제문제 협회 공동 7개국 대외인식 국제여론조사 실시 BBC·매일경제·한국리서치 공동 27개국 국제여론조사 실시</p> <p>12월 《북핵위기와 한반도 평화》 출판</p> <p>2007</p> <p>1월 《한국인의 국가정체성과 한국정치》 출판</p> <p>2월 《2020 중국 리스크》 출판</p> <p>4월 글로벌스캔·매일경제·한국리서치 공동 30개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 국제여론조사 실시 대통령선거 패널여론조사 실시</p> <p>6월 파워정치인 신뢰영향력 여론조사 실시 시카고 국제문제 협회·월드퍼블릭 오피니언 공동 17개국 대외인식 국제여론조사 실시</p> <p>7월 대통령직 인수 성공조건 연구패널 구성 교육 및 조기유학 7개도시 여론조사 실시 제3기 EAI 펠로우 선정</p> <p>8월 《Power and Security in Northeast Asia》 출판</p>	<p>10월 《변화는 한국유권자》 출판 《문견한법》 출판 국가대전략 강연회 개최</p> <p>11월 2007년 연차보고서 발간</p> <p>12월 2007년 후원의 밤 개최 《대통령직 인수의 성공조건》 출판</p> <p>2008</p> <p>1월 JEAS 사회과학 인용색인 등재</p> <p>2월 소프트웨어 원자회의 및 강연회 개최 중국 연구패널 구성 《변화시대의 한미 안보협력》 출판 이숙중 원장 취임</p> <p>3월 월드 퍼블릭 오피니언·경향신문 공동 국제안권 국제여론조사 실시 《변화는 한국유권자 2》 출판</p> <p>4월 국회의원선거 패널여론조사 실시 《동아시아 공동체》 출판 시카고 국제문제 협회 공동 동아시아 소프트웨어 국제여론조사 실시</p> <p>5월 북한선진화 연구패널 구성 평택시 장기발전을 위한 협의회 구축 연구패널 구성</p> <p>6월 세계화 제2막 연구패널 구성 《보수정치는 어떻게 살아남았나?》 출판</p> <p>7월 제1회 한미동맹 컨퍼런스 개최 제4기 EAI 펠로우 선정 《문견한법》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 선정</p> <p>8월 일본 연구패널 구성</p>	<p>9월 제1회 한중 동북아안보대화 개최</p> <p>10월 제1회 한호 리더십 포럼 개최</p> <p>11월 제2회 한미동맹 컨퍼런스 개최</p> <p>12월 동아시아 소프트웨어 국제학술회의 개최</p> <p>2009</p> <p>1월 맥아더재단 아시아안보 이니셔티브 핵심연구기관 선정 아시아안보연구센터 설립 미래사회 증진총 변동 전망과 대학 연구패널 구성</p> <p>2월 한국리서치 공동 정치여론바로미터 매월 여론조사 개시 이명박대통령 취임 1년 여론조사 실시</p> <p>4월 《변화는 한국유권자 3》 출판</p> <p>5월 제1차 스마트 토크 포럼 개최 홈페이지 개편</p> <p>6월 매일경제 공동 정치안보의식 여론조사 실시 월드 퍼블릭 오피니언 공동 20개국 국제여론조사 실시</p> <p>7월 《보수정치는 어떻게 살아남았나?》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 선정 제5기 EAI 펠로우 선정</p> <p>8월 평택국제학교 설립방안 연구패널 구성 제1회 인턴총커밍데이 개최</p> <p>9월 국민계층의식 여론조사 실시 아시아개발은행 인식조사 실시</p> <p>11월 제3회 한미동맹 컨퍼런스 개최 제2회 한호 리더십 포럼 개최</p>	<p>제2회 한중 동북아안보대화 개최 2009년 연차보고서 발간</p> <p>12월 2009년 후원의 밤 개최</p> <p>2010</p> <p>1월 BBC·글로벌스캔·매일경제 공동 26개국 국제여론조사 실시</p> <p>2월 한미동맹 국내이해당사자의 영향력과 역할 국제학술회의 개최</p> <p>3월 사회과학 대강좌 개최</p> <p>4월 전국지방선거 패널여론조사 실시</p> <p>5월 EAI 논평 제1호 발간</p> <p>7월 아시아안보 이니셔티브 서울 연례회의 개최</p> <p>8월 제1회 에픽 영 리더스 컨퍼런스 개최</p> <p>9월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여론조사 실시</p> <p>10월 《21세기 신동맹》 출판 신세계질서의 구축과 한국의 G20전략 보고서 출판 학술도서 선정 주한미대사관·주한미군 공동 유스 포커스 그룹 발족</p> <p>11월 《북한 2032》 출판 및 북한 미래전략 대토론회 개최 《세계화 제2막》 출판 제4회 한중 동북아안보대화 개최</p> <p>12월 제4회 한미동맹 컨퍼런스 개최</p>	<p>2011</p> <p>1월 제6기 EAI 펠로우 선정</p> <p>2월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4》 출판</p> <p>3월 《Public Diplomacy and Soft Power in East Asia》 출판</p> <p>4월 《The Park Chung Hee Era》 출판 및 출판기념회 개최 《중국의 미래를 말하다》 출판 《일본과 동아시아》 출판</p> <p>5월 《북한 2032》 및 《세계화 제2막》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 선정 미중관계공식성명일지 및 미중관계브리핑 제1호 발간</p> <p>6월 증은 홈페이지 개설 여론브리핑 제100호 발간</p> <p>7월 《한국인, 우리는 누구인가?》 출판</p> <p>8월 《한국의 내셔널 어젠다》 출판 제2회 에픽 영 리더스 컨퍼런스 개최</p> <p>9월 《위기와 복원》 출판 제1회 정책자식포럼 개최 동북아 안보포럼 개최</p> <p>10월 《역사 속의 젊은 그들》 출판 제5회 한미동맹 컨퍼런스 개최</p> <p>11월 평택미래발전 대토론회 개최 한일안보협력회의 개최 삼각대와 서울 국제회의 개최 글로벌 코리아 워크샵 개최 제7기 EAI 펠로우 선정</p> <p>12월 10주년 보고서 발간 2009년 후원의 밤 개최</p>
--	---	--	---	---	--	---	--

박정희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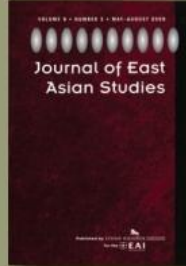
The Park Chung Hee Era: The Transformation of South Korea

하버드대 출판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 현대정치사의 장엄한 역동성을 세계 지식세계에 널리 알릴 수준 높은 영문단행본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론적 깊이와 역사적 통찰을 동시에 겸비한 최상의 학술적 연구결과를 기다렸습니다. 한국의 경험을 비교정치의 시각에서 분석할 수 있는 연구기관을 발견하고자 했습니다. 결론은 EAI였습니다. 2011년 하버드대 출판부는 EAI의 연구패널을 이끈 김병국 고려대 교수와 예즈라 보켈 하버드대 명예교수가 공동으로 편집한 《박정희 시대》를 출간했습니다. 1997년에 그 연구가 시작된 《박정희 시대》는 40명이 넘는 국내외 연구자들이 약 13년 동안 간헐적으로 노력한 EAI의 역작 가운데 역작입니다. 총 23개의 장표를 통해 박정희 정권의 기원, 정치과정, 경제 및 사회정책 그리고 국제관계를 재조명하여 대한민국이 어떻게 빈곤으로부터 벗어나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뤘는지 그 궤적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톰슨로이터사는 생각했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연구를 국가라는 소단위를 넘어서는 진정한 지역학으로 승화시킨 영문학술지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세계적 수준의 논문이 게재되는 영문지널을 탐색했습니다. 미국이 아닌 동아시아 지역에서 글로벌 기준을 충족시키는 영문학술지 발행기관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결론은 EAI였습니다. 2008년 톰슨로이터사는 한국의 민간독립연구기관이 발행하는 영문지널로는 최초로 EAI의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를 사회과학 인용색인의 등재지로 선정했습니다.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는 국내 연구기관이 발행하는 사회과학 인용색인 등재지 가운데 가장 높은 영향력 지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는 한국을 대표하는 동아시아지역학 영문학술지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사회과학 영문지널로 자리잡았습니다.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는 2006년부터 한국연구재단 국제학술지 발행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그 출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EAI 외교안보대전학시리즈

1. 21세기 한국외교 대전략: 그물망국가 건설
2. 한미동맹의 비전과 과제
3. 북핵위기와 한반도 평화
4. 2020 중국 리스크: 중국경제 성장기예측과 리스크분석
5. 변환시대의 한미 안보협력: 미래를 향한 지휘관계 재건축
6. 동아시아 공동체: 신화와 현실
7. 21세기 신동맹: 냉전에서 복합으로
8. 북한 2032: 선진화로 가는 공진전략
9. 중국의 미래를 말한다: 글로벌 슈퍼파워의 가능성과 전망
10. 일본과 동아시아: 지역협력과 공동체 구상
11. 위기와 복합: 경제위기 이후 세계질서
12. 동아시아 국제정치: 역사에서 이론으로

EAI 민주대전학시리즈

1. 대통령의 성공조건 I: 역할 · 권한 · 책임
2. 대통령의 성공조건 II: 회고와 재민
3. 정치개혁의 성공조건: 권력투쟁에서 정책경쟁으로
4. 정치개혁과 국회개혁: 헌장에서의 회고와 전망
5. 국회의 성공조건: 윤리와 정책
6. 경제를 살리는 민주주의
7. 분권헌법: 선진화로 가는 길
8. 대통령직 인수 성공조건: 67일이 5년을 결정한다
9. 보수정치는 어떻게 살아남았나?: 영국 보수당의 역사
10. 세계화 제2막: 한국형 세계화의 새 구상

EAI 여론분석시리즈

1. 노무현 정부의 딜레마와 선택: 국민여론 · 소수정부 · 정책선택
2. 한국인의 국가정체성과 한국정치
3.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패널조사를 통해 본 5·31 지방선거
4.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2: 패널조사를 통해 본 2007 대선
5.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3: 패널조사를 통해 본 18대 국회의원선거
6.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4: 패널조사를 통해 본 2010 지방선거
7. 한국인, 우리는 누구인가?: 여론조사를 통해 본 한국인의 정체성

EAI 영문저널

1. Between Compliance and Conflict: East Asia, Latin America, and the "New" Pax Americana
2. Power and Security in Northeast Asia: Shifting Strategies
3. Party Politics in East Asia: Citizens, Elections, and Democratic Development
4. Collective Violence in Indonesia
5. Public Diplomacy and Soft Power in East Asia
6. The Park Chung Hee Era: The Transformation of South Korea

EAI 영문저널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SSCI 등재지) 2001-



이숙중 ESI 원장과 연구원들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한 지식 네트워크
Knowledge-Net for a Better World